

보도시점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

2024. 1. 4.(목)

## 해양수산가족들과 신년인사 나누고 수협중앙회 찾아 어촌·수산업 현안 논의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참석 및 수협중앙회 방문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4일(목) 전경련회관에서 해양수산부,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,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‘2024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’에 참석하고 수협중앙회를 방문해 어선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어촌·수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에서 강 장관은 “올해는 바다로부터 승천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, ‘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,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 수산’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면서 해수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.”라고 포부를 밝히며, “해양수산업계도 함께 노력하자.”라고 말했다.

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해양수산업계 종사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양수산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이번 인사회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,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,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, 양용모 해군참모총장,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수산분야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.

강 장관은 수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어선안전조업 본부 상황실에서 조업 중인 어업인과 무선교신을 통해 조업상황을 살피면서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.

이어서, 강 장관은 수협중앙회장, 수협은행장 등 수협 관계자들과 어촌과 수산업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수협이 어촌과

수산업의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“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류종영 (044-200-5050)
		담당자	서기관	이근호 (044-200-5060)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준성 (044-200-5420)
		담당자	서기관	이상윤 (044-200-5429)

